

전남일보

“실업팀 창단...경기력 향상에 승부”

신임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 회장

전남태권도협회 제19대 회장에 박흥식(64·사진)씨가 선임됐다.

18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지난 16일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9대 회장에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 신임 회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는 전남태권도가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루어낸 결과”면서 “이 기세를 이어가고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 또한



투명한 협회, 신뢰받는 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

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업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1976년 57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 선수 출신이고, 화순 능주체육관과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 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과 화순 태권도협회장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동환 기자 dhchoi@jinilbo.com

광주일보

“태권도 실업팀 창단하겠다”

전남태권도협 박흥식 회장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전남태권도협회 제19대 회장에 박흥식(64·사진·흥식산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선출됐다.

전남태권도협회는 최근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4년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박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투표에서 참석 대의원 21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박 신임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017년까지 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실업팀이 없다”



며 실업팀 창단과 투명한 협회 운영, 22개 시·군 협회와 협력 등을 약속했다.

태권도 공인 3단과 3급 사범·심판자

격을 보유한 박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업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 전남대표로 출전했으며, 화순 능주체육관·대한체육관 등을 운영하며 후진을 양성했다. 화순 태권도협회장과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일보

“실업팀 창단...경기력 향상에 승부”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장 취임...만장일치 선임

투명·신뢰·소통·화합 운영 다짐...경기인 출신

“실업팀을 반드시 창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업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57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특히 화순 태권도협회장(2008~현재) 직함을 지니고 있는 박 회장은 2009년부터는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번에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전

남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한 박 회장은 “선수·관장(심판)·사업가·협회 임원~그리고 회장에까지 올랐기에 이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남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업팀 부재 등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타시·도에 비하여 모범이 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루어낸 결과”라고 분석한 뒤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회장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흥식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또한 투명한 협회, 신뢰받는 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창병 기자

남도일보

“실업팀 창단·경기력 향상에 승부”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장 취임

“실업팀을 반드시 창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데 찬·반 비밀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업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1976년 57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특히 화순 태권도협회장(2008년~현재) 직함을 지니고 있는 박 회장은 2009년부터는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번에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

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남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선수·관장·심판·사업가·협회 임원 그리고 회장에까지 올랐기에 이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남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업팀 부재 등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타시·도에 비하여 모범이 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루어낸 결과”라고 분석한 뒤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회장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ews.com

광주타임즈

“실업팀 창단 ... 경기력 향상에 승부”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장 취임 일성 ...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투명·신뢰·소통·화합’ 운영 다짐 ... 경기인 출신 영예



“실업팀을 반드시 창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심사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주)흥식산업 대표이사(64)가 전남태권도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흥식 회장은 지난 2월 16일 11시30분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전남태권도협회장에 출마한 박 회장은 이날 21명의 대의원(총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비밀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업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57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특히 화순 태권도협회장(2008~현재) 직함을 지니고 있는 박 회장은 2009년부터는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번에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지 오르게 됐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심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전남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한 박 회장은 “이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남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정재춘 기자

전남매일

“경기력 향상에 최선”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회장 취임

“실업팀 창단 및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주)흥식산업 대표이사 (64)가 전남태권도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흥식 회장은 지난 16일 나주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단독후보로 전남태권도협회장에 출마한 박 회장은 21명의 대의원(총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비밀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임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전배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57회) 전남대표로 출전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했다.

특히 2009년 전남태권도협회



까지 오르게 됐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 및 심판자격증을 지닌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박 회장은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업팀 부재 등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해 모범이 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뤄 낸 결과다.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회장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박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투명한 협회, 신뢰받는 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광민 기자

광남일보

“실업팀 창단... 경기력 향상 주력”

박흥식 (주)흥식산업 대표 전남태권도협회회장 선출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겠습니다. 더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심사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22개 시·군 태권도협회와 협력해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박흥식 (64·사진) (주)흥식산업 대표이사가 전남태권도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협회장에 출마한 그는 이날 21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밀투표를 벌인 결과,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임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전임 조영기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 회장은 전남 태권도계에서는 전배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57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현재도 화순태권도협회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2009년부터는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봉사해오고 있다. 박 회장은 “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전남 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 기자 plus97@

남로매일

“실업팀 창단... 경기력 향상에 승부”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회장 취임 일성... 1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투명·신뢰·소통·화합하는 협회 운영... 경기인 출신 큰 영예

“실업팀을 반드시 창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심사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주)흥식산업 대표이사 (64)가 전남태권도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흥식 회장은 지난 2월 16일 11시30분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전남태권도협회장에 출마한 박 회장은 이날 21명의 대의원(총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비밀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임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전배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봉사해오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전남태권도 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한 박 회장은 “선수 ~ 관장(심판) ~ 사업가 ~ 협회 임원 ~ 그리고 회장에게까지 올랐기에 이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남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업팀 부재 등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여 모범이 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탁

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루어 낸 결과였다”고 분석한 뒤 “이 기세를 계속 해서 이어가는 것이 회장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흥식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또한 투명한 협회, 신뢰받는 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로투데이

“실업팀 창단...경기력 향상에 승부”

박흥식 전남태권도협회회장 취임 일성...16일 대의원총회에서 선임

투명·신뢰·소통·화합하는 협회 운영 다짐...경기인 출신 큰 영예

“실업팀을 반드시 창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협회, 화합하는 협회 운영으로 단 한 사람도 심사 불이익 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2개 시·군태권도협회와 협력하여 경기력 향상에 매진하겠습니다”

박흥식 (주)흥식산업 대표이사(64)가 전남태권도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흥식 회장은 지난 2월 16일 11시30분 나주시 스포츠파크 종합상황실에서 개최된 2014년도 전남태권도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에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전남태권도협회장에 출마한 박 회장은 이날 21명의 대의원(총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 비밀투표 끝에 만장일치로 제19대 전남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박흥식 회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임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조영기 전 회장의 잔여 임기동안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임기는 오는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일까지다.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계에서는 전배가 굵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농고 시절 3년 연속 전국체육대회(1974년 55회 ~ 1976년 57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던 박 회장은 화순 능주체육관, 화순 대한체육관 운영을 통해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특히 화순 태권도협회회장(2008 ~ 현재) 직

함을 지니고 있는 박 회장은 2009년부터는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회장 직무대행, 그리고 이번에 회장 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태권도 공인 5단과 3급 사범·심판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도 한 박 회장은 현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용역 회사인 (주)흥식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사회 경제 및 체육 발전에 헌신·봉사해오고 있다. 취임 일성으로 “전남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전남태권도계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평한 박 회장은 “선수 ~ 관장(심판) ~ 사업가 ~ 협회 임원 ~ 그리고 회장에게까지 올랐기에 이제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은 전남태권도 발전에 매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박흥식 회장은 “전남태권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실업팀 부재 등 가장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여 모범이 되고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게 된 것은 집행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남태권도인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루어 낸 결과였다”고 분석한 뒤 “이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회장으로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흥식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반드시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며 “또한 투명한 협회, 신뢰받는 협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환 기자